취득세 감면 효과 이사업체 반짝특수

가을 이사철까지 겹쳐 모처럼 활기
주택 매매·전세가 오르고 거래 숨통

광주시 동구에서 서구로 16일 이사를 하기로 한 이모씨. 주말이 아닌 평일에 이사를 하게 된 것은 이사 업체의 10월 이사 일정이 꽉 차서다.

이씨는 "10월에는 주말이나 이사하기 좋은 날(손 없는 날)은 이미 예약이 다 차서 불가피 하게 평일에 이사한다"며 "다른 이사업체에도 문의를 했지만 사정은 비슷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취득세 감면 등 '9·10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사업계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교적 규모가 큰 포장이사업체는 이달 말까지 주말 예약이 모두 끝난 상태며 예약과 문의 전화도 지난해 보다 20~30% 가량 증가했다.

야호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사수요가 줄어 이사업체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최근 취득세 감면 발표 후 전화문의나 예약이 늘고 있어 그나마 숨통이 틔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 동구와 남구는 주택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며 매매와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10월8일 기준)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1%, 전년말 대비 4.4%가 올랐다.

또 전세 가격도 한 주 사이 0.2%가 올랐고 지난해 말보다 6.3%나 올랐다. 광주는 전국 평균(매매 0.0%, 전세 3.3%)을 훨씬 웃돌며 매매 거래가 활발하다고 느껴지는 지역에 꼽혔다.

지역별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일선 중개업소에서 느끼는 매매거래 활발 정도)를 살펴보면 동구가 지난해 말보다 8.0%가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광산구(5.5%), 남구(4.7%), 서구(4.1%), 북구(3.4%) 순으로 조사됐다.

광주 동구는 한 주 만에 0.4%가 오르면서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안성과 대구 북구(0.5%)와 함께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에 해당됐다.

동구의 경우 정부 취득세 감면 정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전세난을 겪고 있는 수요자들의 매매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물량이 많아 가을철 이사 수요와 예비 신혼부부 수요까지 겹쳐 매매와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광주 남구도 인근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만에 0.3%, 한달 만에 0.8%가 올랐다.

스마트 공인중개사 김형진 대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매매를 보류했던 실수요자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것일 뿐이지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거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보험사 약관대출 가산금리 20% 인하

이르면 다음달부터…500만명 혜택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20%가량 낮아진다.

이르면 다음달 가산금리를 내린다.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는 계약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을 협의하고 있다.

흔히 약관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보험금 예상 수령액의 50~90% 한도에서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예정이율(보험금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 산정 방식에 따라 은행의 변동금리와 비슷한 '금리연동형'과 고정금리 개념의 '확정금리형'으로 나뉜다.

보험연구원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약관대출 가산금리 상한선을 금리연동형 대출은 1.5%포인트로, 확정금리형 대출은 0.5%포인트 더 높은 2.0%포인트로 제시했다.

보험사에 적정 이윤과 운영 비용 등을 보장하더라도 이 수준을 넘는 가산금리를 붙이는 건 '폭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이런 연구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중 모범규준을 제정, 가산금리 산정 방식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도록 보험사들을 지도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확정형 가산금리는 연동형(평균 1.5%포인트)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2.5%포인트로 매겨졌는데, 이를 2.0%포인트로 낮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약관대출 잔액은 44조6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산금리 인하 혜택이 집중될 확정형은 20조8000억원, 연동형은 20조5000억원이다.

생보사의 약관대출 금액은 1인당 평균 400만원 안팎이다. 가산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확정형 계약자는 약 520만명으로 볼 수 있다. 약관대출 금리 인하에 손보협회는 동의했지만,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이견이 나와 조율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근 3년새 신용불량자 46% 늘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한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최근 3년새 46%나 늘어났다.

당국의 은행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했는데도 신용유의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민주통합당)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에서 건네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6개 시중은행(신한·우리·하나·외환·씨티·국민)의 신용유의자는 2009년 말 17만2087명에서 올해 6월말 25만2049명으로 크게 늘었다. 신용유의자는 은행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연도별로는 2009년말 17만2087명이던 은행의 신용유의자는 2010년말 20만3608명, 2011년말 23만123명, 2012년 6월말 25만2049명으로 매년 2만~3만명씩 꾸준히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신용유의자로 새로 등록된 인원만 6만572명으로 지난 2009~2011년 연간 인원인 7만349명에 이미 근접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시장 초코파이 대전
롯데, '원조' 오리온 제쳤다

러시아 초코파이 시장을 둘러싼 오리온과 롯데제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러시아 시장에서 롯데 초코파이의 판매량이 '원조'인 오리온 초코파이 판매량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닐슨 자료를 기준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년간 판매량은 오리온이 346억원, 롯데가 278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2012년 7월까지는 롯데가 254억원의 매출을 올려 오리온(242억원)에 역전했다.

특히 올해 6~7월은 롯데의 매출이 69억원으로 57억원에 그친 오리온을 크게 앞섰다. 이에 롯데제과 측에서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꾸준한 공략이 성과를 보고 있다며 만족하는 모습이다. 오리온 측에서는 "러시아 시장의 비중이 큰 편이 아니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남성용 맞아요? 15일 광주신세계 2층 액세서리 매장 제이에스티나에서 직원들이 '김수현 주얼리'로 알려진 남성용 액세서리를 선보이고 있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캐주얼뿐만 아니라 정장에도 잘 어울린다고 백화점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광주신세계〉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전국 꼴찌

세무조사는 늘려…작년 세금 916억 부과

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는 늘리고 세정지원은 전국에서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이 호남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해 전년(665억원)보다 251억원이 늘어난 916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은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다.

세정지원에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가 있는데 지난해 전국 세정지원액 5조 4712억원 가운데 광주청은 4911억원으로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세정지원이 많은 곳은 부산청(1조2425억원), 서울청(1조1382억원), 중부청(1조898억원), 대전청(8158억원), 대구청(6939억원)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 세정지원액 3조 1588억원 중 광주청이 3129억원으로 역시 꼴찌였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곳에서 세무당국도 기업들을 도와야 하는데 광주청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광주청은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9월 광주 아파트 경매 건수 줄어
평균 응찰자 수 전국서 가장 많아

9월 중 광주지역의 아파트 경매 물건 수가 크게 줄면서 평균 응찰자 수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15일 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광주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45건으로 전달의 69건보다 53.3% 줄었다. 하지만 중소형 아파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평균 응찰자 수는 8.0명으로 전국 평균 5.3명보다 앞서며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낙찰 건수는 22건으로 48.9%의 낙찰률을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91.1%였다.

전남의 9월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47건으로 이 중 14건이 낙찰돼 29.8%인 낙찰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평균 응찰자 수는 5.9명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토지 경매 건수는 692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평균 응찰자 수는 2.3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명품 병행수입
1위 루이뷔통

한국지사 등 국내 공식수입원을 거치지 않고 가장 많이 병행수입된 제품 브랜드는 루이뷔통, 나이키, 샤넬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여행을 갔다가 국내외 가격차이를 노려 명품 핸드백을 구입해 들어오거나 남을 시켜 불법으로 대리 반입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은 15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행수입물품 정식통관 인증을 받은 69개 브랜드 가운데 상위 10개 브랜드의 수입액이 작년 2조622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10개 브랜드는 모두 명품으로 루이뷔통의 병행수입액이 47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나이키(4652억원), 샤넬(4296억원), 구찌(2522억원), 카르티에(2052억원) 등도 모두 2000억원을 넘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25.59 (-7.67)
코스닥지수	529.33 (-10.53)
금리 (국고채 3년)	2.76% (-0.01)
원·달러 환율	1,110.50원 (-0.7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